



고창군수-말띠직원, 팻말 교환 청렴실천 다져

고창군이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지난 2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팻말 교환식'을 열었다. 고창군수와 1990년생·2002년생 말띠 직원들은 청렴 실천을 약속하는 문구가 담긴 팻말을 들고 이를 서로 교환했다. 공직자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자세를 담은 메시지를 통해 군수의 솔선수범과 직원들의 현장 실천 다짐을 상징적으로 공유하며, 청렴 문화를 조직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고창군은 "청렴은 모든 공직자가 함께 지켜야 할 기본 가치"라며,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계기로 조직 전반에 청렴 문화가 더욱 단단히 뿌리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이번 청렴팻말 교환식을 시작으로 △부정부패 고의신고 훈련 △찾아가는 반부패 법령교실 운영 등 직원 참여형 청렴 활동과 △주요 대인업무 청렴사한문 및 청렴 문자 발송 △대표 지역축제 청렴부스 운영 등 대국민 공감형 캠페인을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행정 구현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소외계층 문화예술참여 확대 이바지

제3회 전북문화예술복지대상 시상식·신년문화예술공연 성료

제3회 전북문화예술복지대상 시상식 및 신년문화예술공연이 최근 백송회관 연회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 행사는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가 주최하고, 전북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과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주장애인복지협회가 주관했다. 지난 한 해 동안 문화예술 활성화 및 복지에 이바지한 사람들을 선정해 시상하고 노력 봉사에 용기를 주며, 문화예술공연으로 소외계층의 문화예술참여 확대에 이바지하는 것이 이 행사의 취지다. 이 행사에는 우범기 전주시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박선전·전서영·이남숙 전주시의회 의원, 최무연 한국예총연합회 전북회장, 임희석 손수례장애인복지협회장, 김철환 장애인기업협회 전북회장, 송각호 대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조은광 서전주로타리클럽회장 등 내빈들과 시민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공연, 개회식(표창수여), 공연 행운권 추첨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문화예술복지부문 대상에 배수진씨와 박병철씨가 선정됐다. 배연희씨와 유자씨, 구재영씨와 한소영씨, 전서영 전주시의회 최우수상을 수상받았다. 김미정씨는 한국예총전북회장을 수상받았다. 공로 표창장 수여식에서는 김희수 도의회 부의장 김남수 장수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진문백씨가 공로 표창을 수여받았다. 한국문화예술진흥회 공로 표창을 수여받은 사람들은



이호기씨, 정순임씨, 이명철씨, 오병희씨, 이수정씨, 백현규씨 백상인씨 등이 있다.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공로 표창을 수여받은 사립들은 이남숙 전주시의회, 장순식씨, 강정원씨, 김정리씨, 오이순씨, 김복순씨 등이 있다. 김양욱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문화예술 활성화 및 소외계층 참여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재능으로 봉사하는 문화예술인들께 감사의 전한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축사를 통해 "문화예술과 사회복지가 더욱 향상되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전주를 조성하고, 올해는 더욱 활기찬 활동을 기대하고 축복받는 한 해가 되자"고 했다. /김재훈 기자



2026 동계전국실업검도대회, 6-9일 남원시

남원시에서는 한국 검도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2026 동계 전국실업검도대회가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남원종합스포츠타운(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남원시가 후원하고 남원시체육회와 한국실업검도연맹이 주최하며 전북검도회와 남원시검도회가 주관, 전국 14개 시·도에서 23개 실업팀 2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다. 대회는 개인전과 단체전 경기로 진행되며 6일 남자부 개인전(3단~4단부), 여자부 개인전, 7일 남자부 개인전(5단~6단부), 여자부 단체전(3인조), 8일 남자부 단체전(5인조) 경기가 치러진다. 대회 마지막 날인 9일에는 남자부 단체전(7인조)이 대회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전국실업검도대회는 국내 검도계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난 실업팀 선수들이 참가하는 수준 높은 경기이다. 남원시는 2023년 대회에 이어 4년 연속 대회를 개최하며 지역 스포츠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검도는 우리나라의 무예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문화 자산이자, 고도의 정신집중과 인내를 요하는 운동"이라며 "전국의 명문 실업팀들이 겨루는 이번 대회에 시민과 검도 동호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설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은 설 명절을 앞둔 3일 익산 왕궁면 위치한 시온유아원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와 아동을 격려했다. 시온유아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안정적인 생활환경과 기본적인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전북교육청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이날부터 도내 사회복지시설 15개소에 쌀, 라면, 화장지 등의 위문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모두가 즐겁고 온정 가득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전북교육청 공직자들이 나눔과 기부 문화 확산에 앞장서 소외된 이웃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부안군산림조합, 설 명절 이웃돕기 성금 기탁

부안군 부안읍(읍장 김병태)은 부안군산림조합(조합장 오세준)이 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성금 15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탁된 성금은 부안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지정 기탁돼 설 명절에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외롭게 보내야 하는 독거노인 등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오세준 조합장은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위도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산림조합으로서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정 부안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매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부안군산림조합에 감사드립니다"며 "전달된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소중히 잘 전달하겠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부안군산림조합은 명절 나눔 활동을 비롯해 장애인 단체 후원과 농능인재육성재단 장학금 기탁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앞장서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익명의 기부자, 남원 사매면에 온기 전파

남원시 사매면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기부자의 조용한 나눔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 사매면 행정복지센터는 신원을 밝히지 않은 기부자로부터 쌀 20kg 50포(환산액 325만원)를 기탁받았으며, 설 명절을 앞두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고자 하는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에서 이루어졌다. 기부자는 배달업체 직원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조용히 기부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식록 사매면장은 "이름으로 나눔을 실천해 주신 기부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 전반에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 양성통합당직제 도입... 이달부터 시범 운영

당직근무 부담 불균형 해소·성평등 공직문화 조성

김제시는 성별에 따른 당직근무 부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성평등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양성통합당직제를 도입해 2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 당직근무는 남성 공무원이 평일 및 휴일 야간 숙직(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을, 여성 공무원이 주말·공휴일 주간 일직(오전 9시~오후 6시)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최근 여성 공무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남성 공무원의 숙직 근무 주기가 짧아지는 등 성별 간 근무 부담의 불균형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당직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와 의견 수렴을 실시했으며, 다수의 직원이 성별 구분 없는 통합당직제 도입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북 지자체 중 처음으로 남녀 직원이 동등하게 일·숙직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당직 시스템을 개선했다. 다만 임신 중인 직원과 출산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직원은 당직근무에서 제외하고, 2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이거나 단독 육아 등으로 야간 근무가 어려운 직원에 대해서



는 일직 위주 편성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양성통합당직제 운영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직실 내 남녀 휴게공간을 분리하고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근무환경도 개선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양성통합당직 시행에 따른 첫 근무자를 격려했고 "통합당직 운영을 통해 당직 근무에 따른 부담이 완화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성평등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 대산면 곳곳 설 명절 맞아 사랑나눔 잇따라

남원시는 3일 남원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강상남)에서 밀가루 선물세트 25세트(50만원 상당)를 전달해 주고, 남원 레미콘(회장 박민석)에서도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백미 10kg 25포(88만원 상당)를 전달하며,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상남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을 향한 마음이 모여, 소외되는 분별 없이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따뜻한 설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성조 대산면장은 "보내주시 정성이 주된 한 분 한 분께 잘 전달되어 모두가 온기 속에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동충동,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안전교육

남원시 동충동 행정복지센터(동장 박마리)는 지난 2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공익형)에 참여하는 어르신 40명을 대상으로 발대식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참여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활동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함께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2월부터 12월까지 총 11개월간 진행되며, 동충동 관내 도로변 잡초 제거 및 쓰레기 수거, 주변 환경 정비 등을 통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동충동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박마리 동충동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이며, 사업 기간 어르신들께서 안심하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자치도 김문강 과장, 김제시에 고향사랑기부

김제시는 3일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국제정책과 김문강 과장이 김제시 고향사랑기부제에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문강 과장은 과거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현 가족센터)에서 약 5년간 센터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이러한 인연을 바탕으로 이번 기부를 통해 받은 답례품 포인트 역시 김제시 가족센터를 위해 재기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과장은 "김제시에서 '김제형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이라는 뜻깊은 사업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며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아이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많은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기부사업이 북돋워질 수 있도록 꼭 달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를 위해 헌신적으로 근무하셨던 김문강 과장이 다시 한 번 김제시를 위해 소중한 기부를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이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맡겨질 수 있도록 모금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순창읍 시기마을 주민, 이웃돕기 성금 쾌척

순창군 순창읍 시기마을에 거주하는 강귀원(75) 씨가 지난 2일 순창군청을 방문해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 달라"며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강귀원 씨는 2016년부터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왔으며, 지난해에도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지속적인 선행으로 지역 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기탁식에 참석한 강 씨는 "저 역시 어렵게 살아왔기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었다"며 "의미 있는 곳에 잘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최영일 순창군수는 "매년 잊지 않고 따뜻한 손길을 전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관내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영원 기자